

---

## 길동생태공원 10주년기념 워크숍

### “생태공원 10년, 길동에서 길을 묻다”

---

#### - 자 료 집 -

- 일 시 : 2009. 6. 10.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 길동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 10주년기념 워크숍  
“생태공원 10년, 길동에서 길을 묻다”

10여년 전 개원 당시 낯설었던 생.태.공.원.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자세히 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될까요? 길동생태공원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 동안 생태공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 반성을 나누고 앞으로 갈 길을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09. 6. 10.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진 행 일 정

기념행사 14:00~15:00

격려사(푸른도시국장)/영상물 상영 : 길동 10년

기조강연 : 생태공원 10년 회고와 전망(이경재 교수, 서울시립대)

토 론 15:10~17:00 생태공원, 조성에서 운영까지

좌 장 : 이춘희과장(서울시자연생태과)

조성관리 : 조동길박사(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김인호교수(신구대조경학과),  
민성환국장(생태보전시민모임)

정 책 : 오해영소장(서울시녹지사업소), 김선희박사(서울시의회  
환수위 전문위원)

프로그램 : 송영은박사(국립생물자원관), 장상욱소장(자연나눔연구소)

시민참여 : 정병준처장(환경교육네트워크), 이근향국장(서울그린트러스트),  
민여경국장(환경교육센터),  
지성희팀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조강연]

## 길동생태공원 현 상태와 나아가야 할 길

이 경 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eco-plan연구실)

### 1.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 강동구 길동 3번지(일자산 자연공원내 생태공원지구)
- 면 적 : 80,683m<sup>2</sup>(24,487평)
- 기본계획 : 1996.2 ~ 1996. 8
- 조성기간 : 1997. 9 ~ 1998. 12
- 개 원 : 1999. 5

### 2. 길동생태공원 조성 구상

- 참고된 해외사례
  - 영국 London의 William Curtis Ecological Park, Heder Hill E. G, Regent Park의 Ecological Pond 등
  - 日本 東京野鳥公園, 千葉県 21世紀 広場, 昭和記念公園의 濕地地区
- 조성구상
  - (1) 습지지역: 습지생태계 복원하고 안정된 극상상태로 천이진행 유도
  - (2) 산림지역: 아까시나무림을 참나무림 군집으로 유도
  - (3) 자연학습프로그램 : 생태적 천이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학습 탐방로 설치
  - (4) 에너지사용 최소화: 조성, 관리에 외부 이입에너지 최소화 원칙



### 3. 조성시 문제점

- 사회적 구성원의 생태계 지식·이해 부족
- 일부 시설물 생태공원 부적절
  - 야생조류관찰대
  - 과도한 나무데크(800m)
  - 물 공급시설
  - 지나친 초본식물 식재
  - 곤충잡복소
- 조성이전 서식생물종 이동 : 원앙, 꼬마물떼새 등 사라짐
- 외곽지역 건조지역 조경수식재 : 잣나무, 주목, 스트로브잣나무 등

#### 4. 길동생태공원의 사회적 영향 및 긍정적 측면

- 인간이외의 생물생활 배려정신 파급 : 공원은 인간위주 놀이, 휴양만의 공간만이 아니다
- 파괴된 생태계 복원가능성 인식 계기
- 자연학습 시설에는 인원제한을 해야 한다는 인식
-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을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로 가능
- 일반시민도 교육하기에 따라 세미프로까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 교육프로그램 자료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제작 가능성 : 10년간 모니터링 자료 구축으로 교육프로그램 제작 가능
- 서울의 환경생태보전지역 설정 계기가 됨
- 학습해설판 디자인은 공원별로 특성있게 한다는 인식
- 생태학습 프로그램에 곤충영역도 중요분야가 될 수 있다는 인식
- 건조지역의 지하수·지표수 양 증가로 자연생태계 복원속도가 빨라짐  
산림지역 아까시나무림은 조성이전은 아까시나무+서양등골나물의 단순구조  
→ 갈참나무 등의 수종 세력 점차 확산



## 5. 관리시 문제점

### 1) 식재 초본식물 거의 도태



### 2) 버드나무, 갈대군락 확대로 수면면적 축소

→ 수질의 부영양화 → 습지지역 불안정상태로 유지

### 3) 나무데크 이용에 의한 생물서식처 불안정

→ 곤충, 야생조류에 직접적인 영향





4) 건조지역 생태적 천이유도 지연

- 귀화초본식물(개망초, 달맞이꽃 등) 발생 후 주변 자생식물종자 이입 어려움



5) 계류생태계 불안정상태 지속

- 계류구조가 일정, 여울과 소의 부족 → 불안정상태 유지

6) 곤충잠복소, 벌꿀집 등에 대한 곤충이용 희박

- 본 지역 곤충상에 대한 연구부족

7) 농업지구의 계획적 관리부족

- 논, 밭으로 구분해 토종 곡식식재로 했어야 함
- 관리에서 시민참여를 계획했어야 함
- 무농약농법을 위한 생물적인 비료(퇴비 등) 공급체계 미흡

8) 개발논리에 의해 자연보전·복원지역은 축소 가능

- 천호대로 확장에 생태공원 면적 축소 → 완충지역이 사라짐





9) 문화센터와 생태공원 연계성 부족

- 문화센터가 2005년 4월 22일에 개관했음에도 위치, 내부 전시시설물 등으로 생태공원과 연계성 부족



10) 동쪽 토양 한지역 식생변화

- 조성이전에 토양이 습하여 은방울꽃, 애기나리, 남산제비꽃 등이 집단생육  
→ 수로 조성 후 점차 사라져 현재는 서양등골나물 번성



## 6. 길동자연생태공원의 관리개선 방향

### 1) 빈영양 호수로의 복원

- 갈대, 버드나무의 높은 밀도에 의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담보, 수질의 부영양화, 특정야생조류의 출현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 수면지역 90%이상 노출되게 식생 제거 후 식생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필요함



## 2) 나무데크 일부 제거 검토

- 현재 나무데크의 수명이 다 되어 교체시 중심지에 있는 나무데크 일부는 제거하여 생물서식에 교란이 되지 않도록 함





### 3) 진입부 공간 개선

- 진입광장(느티나무 식재지) 일부지역 전시위주 식생 도입 필요
- 길동자연생태공원 자료실의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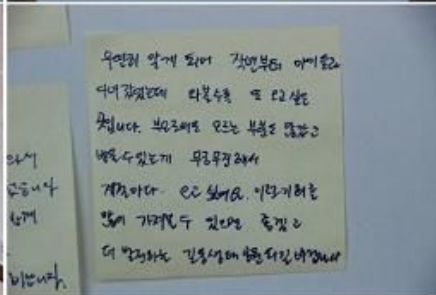
- 화장실 규모 축소



- 야생조류 관찰벽 수명이 다 한후 교체시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일부 생울타리로 교체



- 사무실과 야생조류 관찰벽 공간을 서울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 후 이름표를 매달아 주어 교육용으로 이용





#### 4) 차폐공간(북쪽, 남쪽)이용

- 도로쪽으로 폭 2m정도 차폐식재 후 내부는 특정식생도입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북쪽(방아다리길)은 공간이 넓고 건조하므로 온대중부지방 건조식생숲(졸참나무군집, 상수리나무군집, 굴참나무군집 등)을 조성하여 생태적 구조를 설명함



- 남쪽(천호대로)은 북쪽보다 습하므로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산벚나무 등이 우점종인 습윤지성 낙엽활엽수식생군집을 조성하여 생태적 구조를 설명함, 또는 재래종 유실수원을 조성



## 5) 아까시나무림 적극 활용

- 일부지역 순환코스로 아까시나무림에서 낙엽활엽수림으로 식생이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 관찰하게 함
- 일부 서울지역 자생관목·초본 식생을 도입함



## 6) 곤충잡복소 모니터링 후 축소 검토





## 7) 농업지구

- 밭지역도 재배작물을 중요채소(무, 배추 등) 나 토종작물로 국한 필요
- 농사는 인근 초·고등학교와 결연을 맺은 후 한 학급의 학생, 학부모들이 일 년 간 식재, 관리, 수확을 하게 함





#### 8) 외래식물 정리

- 현재 자라고 있는 아까시나무, 현사시나무, 양버즘나무, 족제비싸리 등은 속히 정리하고, 식재된 계수나무, 꽃산딸나무, 칠엽수, 스트로브잣나무, 오색 병꽃나무, 野村단풍나무(일명 홍단풍)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이입종)





(이입종)



(식재종)



9) 지나치게 세력 확대 식물종 정리

- 버드나무, 갈대, 부들, 노랑꽃창포, 층층나무, 뽕나무 등 식재된 식물종별로 모니터링 후 정리필요





- 식재하지 않은 개망초, 달맞이꽃, 토끼풀, 고마리 등의 식물도 모니터링 후 정리 필요



#### 10) 자원봉사자체계 재구성

- 현재 자연학습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체계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오히려 공원크기에 비해 자연학습교육담당 자원봉사자 수가 많다고 판단됨
- 앞으로 외래식물정리, 세력확대식물정리, 농업지구작업 등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11) 자연학습자료 재점검

- 공원 내 자연학습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4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해설판이 이제 필요함
- 리플렛도 위와 같은 분야별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음

12) 시설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 생태공원 이용에너지량을 자체 생산토록 함
- 태양에너지, 풍력, 지하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적 생산토록 함



13) 생태공원 관리기구 및 전문인력 배치

- 관리기구 : 생태공원관리위원회 설치, 학자, 공무원, 전문단체등으로 구성, 관리개선대책 논의
- 전문인력 : 순환보직 녹지직 공무원 충분한 재임기간 현실적 확보 곤란, 전문계약직 공무원 확보



[토 론] 생태공원의 조성과 관리

조 동 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장)

1. 길동생태공원의 의의

- 우리나라 생태공원 시초로서 생태공원의 조성 및 인식에 대한 확산 계기
- 10년간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는 교육자료 이외에도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다른 생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유용한 안내서로서의 역할

2. 길동생태공원의 조성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

- 잃어버린 생물종들에 대한 고려 : 원앙이나 꼬마물떼새 등 조성 전 서식하였던 자생식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처 조성과 관리 필요.  
예를 들어, 꼬마물떼새의 중요 서식처인 자갈톱(자갈밭) 등의 공간 필요.  
현재는 습지와 저수부 주변이 모두 획일적인 호안구조로 되어 있어 호안 서식처의 다양성이 없음.  
또한 원앙이를 위해서 대경목에 등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3. 길동생태공원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

- 명확한 관리의 목표 설정 필요  
생태공원의 관리 목표가 생물다양성의 증진인지,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모습을 유지(자연적 천이 유도)하는 것인지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식 채택

- “중규모 교란설”에 의한 생물다양성 증진 방식 고려  
자연생태계는 지나치게 간섭이 없거나 지나치게 간섭이 많을 경우보다는 적절한 간섭(교란)이 이루어질 때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상태로 유지됨. 즉, 지나치게 세력이 확산되는 식물종은 이러한 관리기법을 통해서 유지토록 함. 적절한 간섭(교란)이라고 하면, 세력이 확대되는 식물종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외래종을 제거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음. 수위조절을 통한 식물 분포의 자연적 조절도 고려할만함.
- 지나치게 세력이 확산된 식물종과 외래종 등은 제거후 농업지구의 퇴비로 활용
- 순응적 관리 시스템(Adaptive Management System) 도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하는 생물상 및 분포 패턴 등을 고려하여 관리필요. 예를 들어, 개방수면(Open Water)은 생물종의 이입 및 서식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길동생태공원의 경우 많은 습지에서 개방수면을 보기 어려움. 가급적 40~60% 정도의 개방수면을 확보토록 함. 그리고, 이를 위해 수생식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마련하여 적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물기반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식물의 성장 및 분포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기반환경인 토양과 수문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그에 따른 식생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
- 식물표지판에 대한 관리  
식물상의 변화로 원래 식재되었던 식물종이 피압되었던 지역에 과거에 설치한 식물표지판이 있어서 잘못된 식물표지판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음.

[토 론] 생태공원의 조성관리

김 인 호(신구대 조경학과 교수)

생태공원의 긍정성과 한계성

- 생태공원은 생물의 서식처를 조성, 복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생태적 조경 방법에 의해 조성된 공원
  - \* 생태공원도입 기능 : 다양한 소생물권(Micro Biotope) 형성, 서식처(Habitat) 보호, 자연관찰 활동공간 제공, 정보제공 및 해설, 자연복원 연구 및 전파
- 현재까지의 공원조성은 기존 방안에 대한 습관적 수용, 특별한 Design 모델의 무조건적인 선호, 공학적인 기술의 맹종, 인간의 이용편의성에 편중 등 물리적 인공환경 위주로 진행되어 녹지공간의 생태적 생산성이 파괴
- 자연관찰 경험과 자연학습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과 가치판단을 조장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이 요구되어 생태공원의 필요성이 대두
- 생태공원의 시대적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최소 에너지 투입, 교육적 의의, 자연보호, 자연성 회복이라는 조성의의와 함께 도시 속에 야생생물의 서식처를 도입하여 생태계 질서에 의해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하고 탐방객에게 다양한 동식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
- 생태적 요소를 주제로 한 관찰, 학습 측면과 생태원리에 입각하여 조성측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효과성 높은 연계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생태공원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한다는 긍정성과 생태적 가치를 가진 장소의 공원이라는 이용을 전제로 한 개념이 공존하는 양면적 가치를 내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한계성을 갖고 시작함

### 길동생태공원의 관리방안의 유연성과 실험성

- 생태계관리방안은 유지관리(Maintenance), 순응관리(Adjusting Management),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 로 구분될 수 있는데, 관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지관리(Maintenance) : 공원내의 물리적 시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관리대상→방문객센터, 나무데크, 학습해설판, 야생조류관찰대 등)
  - 순응관리(Adjusting Management) : 생태계의 형성과정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형성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인위적 교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순응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핵심보전지역으로 생태적으로 예민하며, 훼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여 생태계의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관리대상→조류의 산란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습지와 수변식생 등)
  -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 :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태계 형성과정을 촉진시키고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방식(관리대상→대체복원이 이루어진 곳으로 생태계의 발전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퇴행적 진행과정을 보이는 곳 등)
- 관리상 문제되는 지역과 항목, 생태계 요소를 단계와 시기별로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선택과 집중형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응관리하는 것이 필요

- 버드나무, 갈대군락 확대로 수면면적의 축소로 인한 습지지역 불안정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생제거를 통해 수면 확보
- 계류생태계의 불안정 상태 지속은 우선적으로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태계 형성과정을 촉진시키는 작업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등)를 도입하여 최소에너지 투입에 대한 명분지속하고 물공급을 원활하고 흐름을 갖게 하기 위한 물공급 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
-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복합용도 공간구조(Multiple Use Module)로 이루어진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진입부 공간 개선 필요
-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의 양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



## 10년 생태공원 모니터링 관리 경험을 통한 배움

- 인위적인 식재와 부적절한 식재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지 반면교사의 교과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가능
- 길동생태공원은 고립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지만 생태계질서에 의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규모, 시간 범위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생태공원
- 생태공원의 모델(시범사례)로서 지속적인 실험적 노력과 모니터링 필요
- 좀더 구체적인 서식지외 보전장소로서의 가치도 구현

(토 론) 길동생태공원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

민 성 환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저는 길동생태공원(이하, 길동공원)과 인연이 깊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현장조사 과정, 현장시공과정, 개원 후 관리·운영과정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6년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서울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생태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울시립대 에코플랜연구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서울시가 이런 의견에 긍정적이었고, 뒤이어 적당한 장소 선정을 통해 길동생태공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대상지 자연생태계 조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게 길동공원과의 맺게 된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게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이었습니다.

우연이었겠지만, 제 친구가 길동공원 시공을 담당한 회사의 현장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기에, 수시로 시공현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했던지라, 대상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찌어찌해서 길동공원 해설판 기획에 참여하게 되어, 초창기 공원 해설판 조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맺은 인연은 쉽게 끊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길동생태공원이 1999. 5월에 개원하게 되는데, 생태공원 관리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생태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교육기능이 중요하고, 이런 교육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라, 행정당국의 준비가 미미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는 NGO에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진행해보겠



다는 제안을 했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행정당국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유지관리 및 운영은 행정당국이 맡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NGO에서 맡는 독특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흔히 보는 민간위탁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시민참여의 선진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성해 마련하고 2년 동안 길동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길동자연공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자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성부터 관리운영까지 6년 정도 길동공원을 가까이서 지켜본 셈이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공원은 개장과 더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그 분들이 다시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길동생태공원이 생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용력을 고려한 탐방객 제한 및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설득과 해설, 홍보작업이 진행되면서 차츰 반발은 수그러들었고, 어느덧 탐방객 제한과 사전예약시스템이 길동공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길동공원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개장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그 공간에 천연기념물 원앙이도 찾아오고, 물총새도 찾아오고, 개체수는 많지 않았지만 다양한 새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활동을 했습니다. 3월에 꼬마물떼새도 찾아왔습니다. 알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자, 꼬마물떼새는 새끼 키우는 걸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마, 탐방객 제한 및 사전예약제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길동공원은 생각보다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생물서식처로의 기능과 사람들의 교육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 계획과 디자인을 통해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길동공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했구요. 소음측정을 통해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 기초자료를 만들기도 했고, 길동공원 구간 인근을 통과할 때는 경적 울리지 않기,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자는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탐방객의 생각과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공원에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처음 접해 본 사람들은 이런 공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 탐방객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언론에서도 길동공원을 많이 취재해갔습니다. 자연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는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원활동가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자료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기획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유지관리 하는 분들이 그 해설 자료를 전부 제거해버려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정기적인 협의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생태공원에 대한 입장과 우선하는 가치가 조금 다르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훈련이 되지 않았던지 그 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01년 초에 길동공원 관리운영 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형식의 체계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길동생태공원 관리운영을 담당할 "관리운영협의체" 구성 제안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2년 동안 활동했던 생태보전시민모임은 떠나고, 행정이 관리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프로그램 운영 까지 행정이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2년 동안 길동에서 활동했던 자원활동가 일부가 맡게 되어 2년 동안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시민참여 형태는 지금 서울시 공원 대부분에서 운영되는 모델이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당국의 역량이 2년의 파트너십 과정을 통해 커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참여, 공원관리운영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아쉬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여하튼 매년 새롭게 충원되고 교육받아 배치되는 자원활동가들의 헌신과 땀을 통해 8년 동안 길동공원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사회에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10년입니다.

사람들은 10년에 의미부여를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이든지 10년이면 사회에서의 자기 위치, 역할이 자리 잡게 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 때문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길동공원의 10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동공원의 성과는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입니다. 길동공원은 무엇을 꿈꿀 것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우선, 길동공원이 새로운 형태의 관리운영모델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하나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동공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행정가, 생태계전문가, 교육전문가, 디자이너, 자원활동가, 정치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 집행하는 그런 구조가 한번 고민되고 시도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관리운영협의체란 그릇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외로 한다면 '재단'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길동공원의 생물서식처로서 기능을 좀 더 고려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동공원에 유지관리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그때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물서식처 유지관리가 아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지침, 방향,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의 영역과 내용을 훨씬 풍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은 다양합니다.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기업도 시민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시민이란 말을 쓰더군요. 그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에서부터 모니터링, 관리, 운영 전반에 모든 시민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한이 바람직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길동생태공원의 앞으로 10년은 지금부터 훨씬 더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50여 분의 자원활동가와 신념과 사명감으로 푹푹 뭉친 행정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토 론] 정책

김 선 희(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1. 생태공원의 조성배경과 목적

1999년에 개원한 길동생태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으로 다른 도시공원과는 차별화한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여 예약제로 입장시간과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 있어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를 살펴보면, 공원구분에는 생태공원이 없으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조례에서 생태공원과 놀이공원을 정하고 있다.

서울의 생태공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제공원의 하나로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설치기준 등에서 다른 공원에 비해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는 길동생태공원을 비롯하여 우면산자연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등이 있으나, 이들이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공원으로서의 생태공원인지는 확실하게 알 길이 없다.

길동생태공원의 개원으로 생태공원이 다른 공원과 다른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다른 생태공원은 예약제가 아닌데 왜 유독 길동자연생태공원은 입장을 제한하는 것일까? 누구에게 물어도 시원한 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일 듯 싶다.

생태공원이란 생태적으로 매우 양호한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와 반대로 생태적으로 양호한 환경이 파괴되어 예전의 환경을 복원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의 두 타입이 있다. 즉 생태공원은 다른 공원에 비하여 공원의 지정 및 조성목적이 분명하며, 그 목적에 따라 운영방법과 관리체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현재 조성되어진 생태공원은 그 조성배경과 조성목적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운영관리 해 가겠다는 운영관리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2. 변화를 조사하고 그 기록을 통해 유지되는 공원

생태공원은 조성에 있어서도 다른 공원과 차별되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생태공원은 일반적으로 공원조성 전부터 주변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며,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변화를 기록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이용자에게 알리는데 조사와 결과의 기록 및 홍보는 생태공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조성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낡은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일반 공원과는 달리 최소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것이 낡아 교체를 할 때도 주변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엇보다도 변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생태공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공원을 본다면 생태라는 말은 빠져있지만,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도 넓은 의미에서 생태공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 공원을 생태공원으로서 운영관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성 이후부터 생태공원에 준하는 관리를 해 온 공원이라면 그 관리목표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서울시내 몇 안되는 생태공원으로서 유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우리의 관심으로 유지되는 생태공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공원의 패턴은 양호했던 환경이 도시화에 의해 파괴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조성된 곳이 일반적이다. 결국 생태공원의 조성 및 유지는 우리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생태공원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서 전문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이다. 사회구성원의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속에서

생태공원이 늘어날 수 없으며, 공원관리청의 힘만으로 생태공원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탐방객안내센터, 자연정보센터와 같은 공간의 확보와 함께 생태공원의 이용자인 시민이 공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제도의 도입은 생태공원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생태공원에 있어서도 탐방객안내센터나 자연정보센터가 있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있다하더라도 그 규모나 운영 실태를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태이다.

아직까지도 공원의 관리보다는 조성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전문가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만 탓하기에는 관심과 열정이 있는 시민이 많아 생태공원에 가보면 여가저기에서 그 애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관심과 열정이 간간이 공원관리청과 대치하면서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어 서로가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볼 때 뭔가 또 하나의 장벽에 부딪힌 듯하다.

현재는 주로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데 시민의 관심과 열정을 좀 더 다양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 사례로 「벗들의 모임」과 같은 후원단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해당 생태공원을 지원하고, 또한 공원의 행사에도 참여하게 하는 시민후원제도의 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토 론] 생태공원 프로그램

송 영 은 (국립생물자원관 박사)

1. 생태공원과 프로그램

- 도시공원은 열린 공간과 초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민에게 휴식 및 여가 장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생태공원은 식물과 곤충, 야생조류 등의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
- 생태공원 그 자체뿐 아니라 생태공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 운영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 - 은 이용자로 하여금 생태공원을 지속적으로 찾게 하고, 생태공원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환경교육, 생태교육의 목적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 →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원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례 증가

2. 길동생태공원의 프로그램

- 연간 주제를 선정하여 계절별,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
- 인력풀이 풍부하고, 운영 횟수나 참가자 규모가 매우 큼
- 격주 교재 발간, 프로그램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강화 중

3. 생태교육, 환경교육

- 인간과 생태계의 유기적 관계를 알게 하고 생태계의 한 구성인자로서 인간의 존재를 발견

- 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물과 환경요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환경친화적 감성, 의식,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환경윤리 확립의 논리적 근거를 제고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의 하나
- 생태적으로 건강한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새로운 심미적 기준을 갖도록 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하도록 도움

#### 4.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 생태계 속의 다양한 생물의 생태뿐 아니라 그들의 시각(관점)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점 찾기
- 실제 삶과의 연계성 찾기
  - 자연 및 생태관찰 +  $\alpha$
  - 나의 삶 속의 실천, 참여와의 연계점 찾기
- 참다운 가치에 대한 고민과 성찰
  - 생태적 소양을 통해 길러질 수 있도록
-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
  - 공원을 우선 조성한 후 프로그램 운영을 고민하는 단계를 벗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계획

#### ※ 참고자료

- 김재근 (2002). 길동자연생태공원 생태학교 교재에 나오는 동식물의 종류와 종수에 대한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0(1). 38-46.
- 남상준 (1995). 환경교육론. 대학사.
- 박태윤·노경임 (2006).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9(6).
- 조우·유기준 (2004). 탐방객 특성에 기초한 도시공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8(3). 297-305.



[토 론] 시민참여

정 병 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

- 지속적 참여를 위한 정규프로그램의 확대
  - 일회성 생태교육의 틀을 넘어서기 위한 ‘생태학교’의 정규 프로그램 확대
  - 계절별 프로그램 등의 운영 강화를 통한 일회성 생태교육을 위한 예약제 등의 운영의 한계를 극복
  - 회원제 등을 통한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키 운영
- 참여를 통한 공원가꾸기 프로그램의 추진
  -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원가꾸기 참여를 추진
  - ‘아빠와 함께하는 공원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개설키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의 강구
  - 공원내 청소년 동아리(길동지킴이청소년단), 길동사랑교사모임 등의 구성을 통한 지속적 참여 방안 구상
- 생태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거점으로서의 생태공원화
  - 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하는 청소년, 주민단체 등의 구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
  - 생태뿐만이 아닌 지역내 환경보전 활동 추진의 거점으로서의 공간화
  - 지역 환경보전 활동 추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확대와 강화
  - 민관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공원내 환경오염 신고센터 등의 구성과 운영

○ 청소년이 주인되는 길동생태공원

- 일본 온가가와수변관의 청소년 팀 사례 - YNHC
-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으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 찾아가는 길동생태공원

- 길동생태공원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해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학교나 유치원등으로 찾아가는 길동생태학교등을 운영하여 지역의 환경교육 허브로서의 역할강화

[토 론] 시민참여

이 근 향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길동생태공원은 우리나라 공원이용문화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평생학습과 자아실현에 목마르던 시민들을 생태해설 자원활동가로 성장시키며 막연하기만 했던 시민참여의 개념을 자원봉사모델을 창조하며 시민참여공원운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공원이 단순히 녹음제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함도 증명했다.

그러나 길동생태공원 10년을 돌아보며 생태공원으로서의 정착과 공원의 시민 참여 모델로서, 길동 이후 출발하는 공원이나 도시숲에 대한 선도적 모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후진들(follower)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1999년 길동생태공원 조성시 수립했던 조성 목표와 장기 비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길동생태공원조성 목적 : 도시지역에서 부족한 자연학습장소를 확보하고 도시지역의 생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으로 조성\_ 2006.11.서울그린트러스트 도시숲 심포지엄). 개발이익의 환상이나 개발논리에 의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공원을 지난 10년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오고 있는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천호대로 확장에 의하여 완충지역이 사라지고 자연보전, 복원지역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해결과정이 있었고, 부득이한 개발압력의 결과로서 공원 및 공원관리에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그

래서 향후 국토이용계획상 공원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과정 시 당초 조성 목표대로 공원을 지속하기 위해선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검증해야 한다.

둘째, 길동생태공원은 생태공원이지만 공공장소(Public Space)로서 사람들의 교류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길동생태공원이 자연학습시설로서 생태적인 관리기준이 우선시되어 탐방객 인원 제한을 두고 획기적인 공원관리방안을 설정한 것은 매우 유효적절하였다. 그러나 생태공원을 매개체로 한 지역내 다자간의 교류나 전문네트워크와 관련, 그동안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 이외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 및 교류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다.

길동생태공원의 사회적 잠재력은 도시공원의 자연해설 자원활동가들의 아카데미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공원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복지, 환경관련 지역 사회 단체, 또는 동호회 등 다양한 시민과의 유기적 교류에 의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시대 우리사회의 녹색바람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사회교육 욕구를 적극 대처하거나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 공원의 움직임은 환경적, 경제적, 나아가선 사회, 병리적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공원에서 해법을 찾아 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길동생태공원의 10년 역사를 돌아보며 생태보전과 자연체험학습의 역할 이외 길동생태공원이 지역사회와 전체 우리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계량적, 정량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 미친 사회·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애정과 공감대 형성으로 더욱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자원활동시스템의 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0년간 구축해온 생태해설분야는 그 스스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배

타적이며 통섭하지 않는 자신만의 조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와 역량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태해설 위주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원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진정한 시민참여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수준 높은 공원의 시민참여는 단순한 활동가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에 근거한 기업 시민, 단체의 자원봉사욕구나 기부를 통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면에서 기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안정되고 경직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리 시스템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위해 행정 및 시민과의 부단한 교류활동을 통해 활동역역을 넓혀가야 한다. 외래식물 관리 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분야의 신설 계획도 양성된 자원봉사자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원시설관리자 입장에서 자원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신뢰없이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공원시설관리 자원봉사활동은 어렵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토 론] 시민참여

민 여 경 (사, 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아이들이 잘 자라고 역량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지구를 구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지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며”<sup>1)</sup> 지구를 사랑하는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사랑하는 것에서 가능하다.”<sup>2)</sup>

1999년에 개원한 길동생태공원은 자연생태계를 학습, 관찰, 체험하기 위하여 만든 체험관찰형 생태공원이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의 제공, 도시민의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된 길동생태공원은 자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심미적 가치와 참가자 한 사람 한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로서의 기억과 이미지, 경험을 제공해 왔다.

생태계의 건전한 유지관리를 통한 동식물들의 서식처 제공이 길동생태공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루 이용객 200명 총정원제를 운영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입장만 가능하다. 1일 200명 총정원제는 시민참여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견 상반되는 제도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원의 활용을 담보하는 기제로 볼 수 있다.

---

1) Sobel, D. (1996). *Beyond Ecophobia: Reclaiming the Heart in Nature Education*, Barrington, MA: Orion Society. 39p

2) Orr, D. (1994).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Island Press. 147p

길동생태공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프로그램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접근과 친환경건축의 하드웨어적 접근, 온라인을 통한 생태학습 공간 제공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1. 프로그램

### (1) 지역과 하나되는 생태공원

- 길동생태공원 내의 농업지구를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농장으로 운영 고려
- 인근 지역 초등학교(길동초교, 대명초교, 천동초교, 둔촌초교, 고일초교 등) 재량활동시간 생태강사 지원 혹은 연계수업

### (2) 생태 모니터링

- 시민(지역주민) + 자원활동가 + 전문가로 구성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임 운영
- 분야별 어린이 모니터링 모임 운영(식물, 동물, 곤충, 새 등)
- 인근 지역 대학 혹은 관련학과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 (3) 길동생태문화센터의 활성화

- 인근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2. 하드웨어적 접근

### (1) 생태학습(전문)도서관 운영

- 생태공원탐방객센터 자료실을 활성화
- 장기적으로 생태학습 전문 도서관으로 발전
- 도서관 내 어린이 생태학습교실 운영
- 길동생태문화센터의 효율적 활용과 연계하여 고려

## (2) 친환경적인 생태건축

- 생태공원탐방객센터를 친환경 건축물로 리모델링 고려
-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 도입
-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교육,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 등

## 3. 홈페이지 활용

### (1) 검색의 용이도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네이트에서는 바로가기로 연결이 용이하였음.
- 야후, 파란, 구글에서는 바로가기로 연결되지 않아 여러 번 걸쳐 검색해야 함.

### (2) 홈페이지 내용 구성

- 주소 : <http://parks.seoul.go.kr/gildong>
- 교육정보 제공
  - : 자료실 메뉴의 공원자료실의 사이버학습에서 2006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태학교 교재를 PDF파일로 제공
- 시민게시판 : FAQ/ Q&A/ 프로그램 후기/ 시민의 제안

### (3) 의견

- 홈페이지 내에 시민참여 공간이 매우 적음.
- 교육적 자료와 정보 제공이 부족함.
- 시민게시판의 'Q&A, 프로그램 후기, 시민의 제안' 용도의 구별이 되지 않고 중첩되는 경향이 있음.

·체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인터넷(예약)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참여의 어려움이 있음.

#### (4) 제안

- 도서관 내 어린이 생태학습교실과 연계한 온라인 생태학습 제공
- 현장체험(오프라인)과 홈페이지(온라인)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기회 제공
-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코너 마련

마치며

체험환경교육에서 제공하는 체험의 기회가 학습자에게 진정한 체험으로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일상적 삶의 경험과 맥락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곧 체험환경교육에서 제공하는 체험의 기회가 장소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장소는 일상적 삶에서 경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sup>3)</sup>

체험환경교육의 중심에 위치한 길동생태공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학교와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10년을 맞이하는 길동생태공원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자원활동가분들의 따뜻한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

3) 권영락, 황만익(2005). 장소감의 환경교육적 의의, 환경교육. 2005 18(2), 55~65

[토 론] 길동생태공원 10년, 이제는 개인을 넘어 지역을 생태공원화 해보자

지 성 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활동팀장)

자연환경의 급속한 파괴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자연을 파괴한 장본인인 인간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공원의 탄생은 아이러니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감수성을 일깨우고 사라져가는 동, 식물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실험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길동생태공원의 지난 10년이 생태공원의 일반적인 관리, 운영 목표에 얼마만큼 부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생태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 공존하는 단초를 여는 것이다.

생태공원의 이해가 부족했던 1999년, 사람들은 극장이나 식당 등에서나 익숙한 ‘예약제’를 공원에 적용하는 것에 비난했었다. 또한 음식물 반입 금지, 애완동물 출입 금지, 정해진 관찰로 로만 다니기, 자전거 출입금지 등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몹시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생태공원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불편한 ‘예약제’와 행위제한을 이해하였으며 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생태공원 조성 목적의 하나인 환경교육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길동생태공원은 특히 시민 스스로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공원의 관리와 운영체계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자원 활동가에 의한 생물 모니터링, 교육교재개발,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이후 모범사례로 꼽히며 생태공원의 개념 중 ‘자연체험, 학습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10년을 걸어온 길동생태공원은 지금 어떻게 변화했을까? 우선 자원 활동가의 수가 50여명에 이른다. 그들의 지적 수준은 현재 활동하는 생태교육 자원 활동 조직 중 가장 으뜸일 것이다. 또한 생태교육을 받기위한 사전예약은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힘들다고 한다. 생태공원과 동떨어져 연계성이 부족하지만 문화센터도 생겼다. 그밖에 10년의 세월은 길동생태공원에 살고 있는 동, 식물에게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나무데크도 많이 낡아 최근 교체공사를 했다고 들었다.

이렇듯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은 길동생태공원의 생물들과 사람들에게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 또한 숨길 수가 없다.

생태공원의 기능 중 도시민들에게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감수성을 일깨우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눈뜨게 하는 것이다. 각성된 의식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녹색문화를 만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길동생태공원은 이 부분에선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생태공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지역주민, 자원 활동가, 공무원, 생태전문가등이 모두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공원운영협의회’ 같은 체계 속에서 논의되고 그 속에서 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생태공원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실정 상 생태교육과 자원 활동가 양성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 생태공원의 가치에 부합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생태공원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생태공원 옆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본적으로 일자산과 생태공원이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도시의 특성상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원의 면적이 축소되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어야 했다.

또한 자원 활동가 양성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성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교육을 통해 본인도 변화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자원 활동가로 고민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자원 활동의 영역을 다양화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생태교육 분야에만 자원 활동을 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자원 활동가들이 배출되어 일정 기간만 활동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순환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자원 활동가 양성이 부담스럽다면 ‘시민학교’ 와 같이 장, 단기 강좌를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 활동가 선생님들이 강사진이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 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길동생태공원은 10년 세월의 무게만큼 그 책임 또한 무겁다. 이것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일을 해왔고 또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번져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나온 10년을 밑거름으로 앞으로 10년은 24,487평만이 생물의 서식처가 아닌 지역전체를 생태공원화해서 사라졌던 동, 식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길동생태공원이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길동생태공원의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